

## "한미일 협력 감안 2012년이 바람직"

케네스 퀴노네스 前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 盧대통령 발언 대신 외교채널 활용해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2012년으로 넘기는 것이 좋다. 한미 양국의 군사적 협력 뿐 아니라 한미일 삼각 군사적 협력도 상정해야 한다. 전쟁이 났을 때 한일 양국이 직접 협력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삼각 협력 체제 모색에 따른 새로운 절차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 동맹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우선 한국은 경제적으로 훨씬 강력해져서 미국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로 남북 관계가 변화했다. 한국은 북한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유발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국 대통령은 당연히 한국을 대표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시끄럽게 발언을 많이 하기 보다는 미국에 반대하는 것이 있을 때 외교 채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노 대통령이 목소리만 키우면 미국인들은 그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이후에도 한국의 방어 능력은 충분해지지 않을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쟁 억지력에는 여러 측면이 있는데 핵 전력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재래식 전력이다. 동맹간 협력체제도 억지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핵 전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능력이 충분치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전면 철수의 프로세스는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의 미 행정부에서는 추가적인 미군 감축을 시도할 것이다. 추가 감군 과정은 계속될 것이나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